

“

EP-1234”에 대한 논평

정월기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장)

1. 들어가는 말 - 논평 개요

‘성공적인 교회에는 비밀이 있다 본당 활성화 방안 EP1234’를 주제로 한 미래사목연구소 소장 차동엽 신부의 발제는 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한국 교회에 ‘방법’보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면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담고 있는 희망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논평에 앞서 한 사람의 사목자로서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본당이나 미래에 어려움을 겪게 될 본당을 대신하여 먼저 발제자인 차동엽 신부에게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발제문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더불어 논평에 임하고자 합니다.

발제문은 크게 4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부에서는 냉담자 증가, 세례율 감소, 젊은층 급감, 고령화 가속, 활동 신자 감소 등 교회 내적인 위기와 도전들을 보도 자료와 통계 자료에 근거해 제시하고 있고, 종교적인 위기 상황, 즉 자연 영성을 선호하는 시대의 흐름에 바탕하고 있는 불교의 약진과 그리스도교의 고전, 상대주의로 대변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적인 위기 상황, 곧 5T, 3C, 3D, 3F로 제시된 시대적 도전, 반그리스도교적 문화의 확산을 진단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위험 수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교회 구성원들의 자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2부에서는 제1부에서 제기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음을 단언하면서 국내외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성공 사례 원리들을 소개하고 이어 이 원리의 공통 분모를 추출하여 개발한 EP1234의 탄생을 알려 줍니다. 제3부에서는 EP1234 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EP1234의 원리를 적용하여 실시하는 본당 자가 진단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1부는 현 시대를 교회적인 시각에서 일목요연하게 잘 진단해 주고 있고, 제2부는 이런 시대적 위기와 도전을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나약한 인간으로 강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느님과 일치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부활한 삶으로 우리에게 그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셨던 ‘바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희망이 있고 보증이 있고 확증이 있다는, 한 마디로 그분의 힘으로 이 모든 위기와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단언하는 명쾌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 논평자를 감동케 했고 가슴 벅차게 했습니다.

방법적 접근이 아니라 원리적 접근에 근거하여 국내외 가톨릭교회 및 개신교회의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한 EP1234 본 내용을 설명하는 제3부는 논평자로 하여금 방법적인 접근이 도달할 수 없는 원리적 접근의 성과와 탁월함을 가늠케 하였고 이를 통해 각 본당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원리적 접근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EP1234의 기본 원리를 생명유기체의 성장과정에 비추어 토양(1), 뿌리(2), 줄기(3), 열매(4)로 상징

화한 것이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제3부의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본당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을 소개하는 제4부는 약간은 복잡했던 제3부에 비해 단순하게 일별되어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2. 본론 - 실제 논평

이제 발제문의 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3부와 제4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실제적인 논평에 들어가하고자 합니다.

본당 활성화를 위한 매스터플랜인 EP-1234는 사목 전체를 총괄하는 사목 비전 EP와 교회 유기체(ecclesiastical organic body)의 각 기관(organ)에 배속되는 열 가지 교회 활성화 인자(factor)를 요소로 하는 12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가톨릭, 미국 가톨릭, 미국 설문 조사, NCD, D12, Russell의 활성화 요인의 공통 분모를 추출한 것입니다.

발제자에 따르면 EP는 복음적인 것을 지향하고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즉, EP는 복음적 사목(Evangelical Pastoral)의 약어로 열 가지 교회 활성화 인자들 하나하나를 복음의 원리에 의존하여 사목적으로 돌보고 이 사목적 돌봄 가운데 복음적 비전을 교육(전도, 정착, 양육, 제자 훈련, 군사 훈련, 사도 훈련의 다이아몬드 양육 시스템)하는 것을 말합니다.

1234는 교회 유기체의 각 기관에 배속되는 10가지 본당 활성화 인자입니다.

토양에 배속되는 첫째 인자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무한한 가능성의 원천이므로 예수님의 모든 구원 활동이 성령의 감도를 받아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목 활동도 성령의 현동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뿌리에 배속되는 둘째와 셋째 인자는 개인 차원과 공동 차원에서 하는 기도와 리브스의 동물학교 예화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구성원 각자의 소질, 재능, 카리스마, 달란트 등을 발견하도록 돕고 독려하며 그 은사들을 발휘할 기회와 공간을 마련하는 전 신자 은사 계발입니다.

줄기에 배속되는 인자는 세 개입니다. 넷째 인자는 평범한 신자들이 '위대한 교회의 사명'을 자각(自覺)하고 수행(遂行)하는 장(場)인 소공동체가 활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자는 보조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기능 조직으로서의 본당 조직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자는 공동참여형, 조정자형, 개척자형으로 풀이되는 새로운 개념의 뉴리더십으로 생명 유기체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열매에 배속되는 인자는 네 개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 선포(Martyria), 전례(liturgia), 친교(koinonia), 섬김(Diakonia)을 새롭게 표현한 것입니다. 입곱째 인자는 수요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덟째 인자는 전례의 은총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인자는 신자들 간의 사랑 지수를 높여 고감도 사랑을 하는 것이며 열 번째 인자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제자는 EP-1234 교회 활성화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계통적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최적화(optimization)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어 발제자는 제4부에서 본당 실정에 맞게 EP-1234의 적용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본당 사목 실태 진단을 위한 자가 진단 및 자가 처방을 소개합니다.

이에 따르면 진단을 원하는 본당은 먼저 원리 이해의 시간을 가진 후 층화추출 방법에 기초하여 표본

집단을 선정하고 2시간 정도의 설문 작성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후 본당 자체적으로 EP-1234의 열개 인자별로 종합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환산해 내고 최소 점수를 받은 인자를 가려내어 이에 대한 통합적 대안과 부분적 대안을 수립하면서 본당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차동엽 신부 발제문 대부분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감사와 찬사를 드리면서 논평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느낌을 말씀드리면, EP-1234 본 내용을 설명하는 제3부는 사실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원리를 근거에 깔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복잡하게 했다는 느낌을 주고, 제4부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단해야 하는 것을 너무 간단하게 단선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EP-1234가 생명 유기체를 전제로 하였듯이 본당도 사실 살아 숨쉬는 것이기에 그렇게 간단하게 진단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논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4부에 관해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 제3부에 관한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발제자는 진단을 원하는 본당은 준비 단계에서 본당의 핵심 스태프들(신부님, 수녀님, 평협위원, 나아가 단체장)이 책, 자체 워크숍, 미래사목연구소 연수를 통해 EP-1234의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소요 시간은 최소 4시간 정도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4시간만으로 EP-1234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발제문을 읽는 데에도 하루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표본 집단 선정 방법은 본당의 신자들을 동질적인 몇 개의 층(strata)으로 나누고 이러한 각 층으로부터 단순 무작위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인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일명 Random(랜덤)이라고 하는 본 진단 방식은 설문 조사의 기본 방식이기도 하고 설문 조사에 투여되는 시간도 2시간이므로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진단 절차를 밟아 설문응답자들이 회수되면 사목위원들이 간단한 집계 방식에 의해 EP-1234의 열개 인자별로 종합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환산해 내어 이를 ‘최종평가지’에 기입해야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이어 가장 최소치의 점수를 나타낸 인자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하여 본당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본 진단 조사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아쉬운 점과 의문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쉬운 점은 조사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다 심도깊은 연구 진단에는 설문 조사 방법만이 아니라 참여 관찰 방법이나 심층 면접 방법, 그리고 자료 조사 방법 등이 함께 동원됩니다. 본당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을 다소 일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설문 조사 방법만으로 100% 달성하기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물론 발제자께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동원할 경우 경비와 시간 면에서 부담스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본 연구 방법을 도입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집계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열개 인자별로 종합 점수를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내는 방식 곧 빈도 방식을 취하였는데, 설문 조사 내용에 있어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항이 있는가 하면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개는 빈도 분석뿐만 아니라 교차 분석, 기술 통계 분석, 2-3 집단 이상의 평균 비교, 군집 분석, 요인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에 논평자는 과연 빈도 분석만으로 설문 조사 내용에 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아쉬운 점은 분석 주체에 관한 것입니다. 발제자에 따르면 설문응답지들을 해당 본당 사목 위원들이 취합해 집계하는 것으로 말씀하였는데, 아무리 간단한 조사 방식을 취한다고 해도 비전문가들만으로 정확한 집계가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네 번째로 설문 내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P-1234 원리를 담은 설문의 본 내용을 말씀하시는 않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과연 이 EP-1234 원리를 간단한 집계 방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설문 항목들에 다 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설문 조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객관적인 평가 지표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EP-1234 원리를 담은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단순한 작업은 아닐 듯싶은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당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정확한 조사 분석 방법으로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래사목연구소에서 실제적인 사목 대안, 방안, 프로그램들을 목록화하여 준비해 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P-1234 본 원리를 담고 있는 제3부에 관해 몇 가지 아쉬운 점과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쉬운 점은 용어가 다소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EP-1234를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적 사목, 교육, 성령, 기도, 은사, 소공동체 본당, 리더십, 복음 선포, 전례, 친교, 섬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 친숙할 수 있는 이 용어를 일반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요 중심 복음 선포, 고감도 사랑, 토털 서비스’ 등으로 표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논평자는 어차피 EP-1234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본당, 곧 신자들이므로 신자들에게 더 친숙한 용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EP-1234의 원리는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소공동체 신학 원리 및 실천 원리에도 대부분 담겨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프로그램화 했다는 데에 상당한 의의와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발제자께서 여섯 번째 인자인 뉴 리더십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아니라 신 개념의 리더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에서는 사실 소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리더의 역할 및 리더십의 원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쉬운 점은 현재 우리가 처한 한국 교회의 본당을 진단함에 있어, 본당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밝히고자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를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천

주교회 역사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아직까지, 한국 교회 안에서 본당 활성화의 여부는 사목자의 관심과 열성에 거의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목자의 관심과 열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신자들의 투신과 사도적 열성으로 본당 운영과 활성화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것이 사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EP-1234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섯 번째 리더십에서 일정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더십은 사목자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제, 수도자, 사목위원, 단체장, 구역반장 등 다양한 교회 구성원의 리더십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제가 어떻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과 모델을 본당에 적용하도록 매력을 주고 이것을 적용하면서 오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과 힘을 줄 수 있는지가 큰 과제이라고 봅니다. 사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으며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생기는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주임신부의 지도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입니까?

네 번째, 발제자께서는 네 번째 인자인 소공동체를 설명하시면서 줄기에 해당하는 다른 두 가지 인자 즉 본당과 리더십과 연결, “이들 세 가지 가운데 세포 조직의 역할을 맡는 것이 ‘소공동체’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공동체는 폭넓고 열려있는 개념이다. 가정공동체, 구역/반 소공동체, 단체 등 모든 소그룹 모임을 포괄한다.” 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협의적인 의미에서 소공동체는 몇몇의 가정이 모여 복음을 나누고 이를 실천하며 보편 교회와 일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정 공동체, 단체 모두 공동체로 묶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공동체를 가정공동체, 구역/반 소공동체, 단체 등 모든 소그룹 모임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데에는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기반으로 하지만 소공동체는 가정과 다르며, 특별히 단체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발제자도 제4계명인 ‘소공동체가 일하게 한다.’ 라는 항에서 대부분의 언급을 단체가 아니라 소공동체와 관련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공동체’인 소공동체는 영어로는 small christian community로 표기되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회의 선교 사명』 회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소공동체란 소수의 가정이나 인근 신자들이 기도와 성경 독서와 교회 공부와 인간적 교회적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공동 책임을 도출하는 소수 신자들의 집회를 말하는 것이다.” (51항) 이를 통해 소공동체가 일차적으로는 구역/반 소공동체를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AsIPA: Asian integral pastoral approach)에서도 4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소공동체라고 합니다. 즉 이웃이 가정에서 모이고, 복음 나누기를 하며, 실천 활동이 이루어지고, 보편 교회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가정에서 모인다.’ 는 것은 ‘삶의 현장’ 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제2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 공동체도 소공동체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당의 단체도 작은 모임이니까 소공동체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와 다릅니다. 아시아 주교회의의 아시아 자료에서도 단체와 소공동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본당을 기반으로 하고 사도적 사명을 수행하며 주임 신부의 지도력 하에 본당을 유지 발전시키고 교회 선교와 구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소공동체는 본당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 사회 안에 교회를 현존시키는 과정으로 육화의 신비를 구체화하는 것이며 삶의 현장에 교회를 육화하는 과정입니다. 1979년에 동아프리카 주교 회의회는 그리스도교 소공동체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공변되고 사도적인 교회가 가장 지역적으로 육화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¹⁾ 동 주교회의는 단체는

소공동체를 보완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²⁾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며,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에 바탕을 두고 모인 백성’ (교회 헌장 7항·4항 참조) 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하느님 백성을 교회되게 하는 원리는 친교이며 이 친교의 교회론은 공의회 문헌들의 중심 개념이고 기본 개념입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19항 참조). 서울대교구장은 시노드를 통해 “10여 년 동안 추진하였던 사목 정책인 ‘소공동체를 통한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가 ‘친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이것이 서울 대교구의 이천년대의 사목 전망 안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목적 대안이며 정책임을 선언한다”³⁾고 하였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도 바오로 6세의 회칙 『현대의 복음 선교』를 인용하면서 “교회 자체가 친교인 만큼 새로운 기초 공동체들이 참으로 교회와 일치하여 산다면 그들은 이 친교의 증거가 되고 더 깊은 친교를 이루는 방법이 된다.” (교회의 선교 사명 51항)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황이 천명한 대로 “기초 공동체는 교회 생활에 크나큰 희망을 주며, 교회의 활력의 표지이고 신자 양성과 복음화의 도구이며 ‘사랑의 문화’에 바탕을 두 새로운 사회의 출발점” (교회의 선교 사명 51항)입니다. 그런데 EP-1234에서는 소공동체가 본당을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10가지 인자 중의 하나로 전략되면서 소공동체가 갖는 교회성과 자발성과 생명력을 약화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본당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소공동체라기보다는 삶의 현장의 교회, 구역/반 소공동체는 보편 교회가 지역적으로 육화한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⁴⁾ 소공동체는 그 자체가 보편 교회가 지역적으로 육화한 교회로서 그 안에서 EP-1234가 말하는 교회의 10가지 인자가 활발하게 드러나고 완성될 수 있는 장이며, 아울러 친교의 공동체와 선교의 공동체가 소공동체 안에서 통합되어 소공동체가 통합 사목의 장으로 자리잡기를 전망하는 아시파의 비전에 비추어 볼 때에 소공동체는 본당 활성화의 10가지 인자 중의 하나라기 보다는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아우르면서 통합하는 장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부님의 본당 활성화 방안 EP-1234는 본당뿐만 아니라 소공동체 안에서 적용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개신교에서 발전한 교회 성장학이 천주교에서 낯설게 들리는 것은 발전 논리가 가져오는 교회의 세속화를 우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성장은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 성장도 가져와야 하는데, 질적 성장은 객관적으로 숫자화해서 평가하기 쉽지 않기에 성장과 발전의 논리가 팽배한 교회 분위기 속에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양적인 기준이 평가 척도가 되면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가난의 영성을 간과하게 될 우려가 있고,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파스카의 신비 같은 복음의 진수를

- 1) 아프리카 주교회의(AFER), 21권 5호 1979. 10월 265 - 266페이지: “우리가 세우려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공번되며, 사도적인 교회가 가장 지역적으로 육화된 것이다. ‘소공동체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일상생활과 관심사로 교회를 끌어내리는 수단이다. 교회는 그 공동체들 안에서 사람들의 삶의 상황 속에 있는 삶과 피를 취하게 된다.”
- 2) AFER 21권 5호 1979. 10월호 167페이지: “학교나 운동, 직업이나 관심사에 따라 모인 공동체들 역시 가치 있고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소공동체를 보완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 3)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교회 운영 43항.
- 4) 선교 교령 15항: “그러므로, 하느님의 협력자인 선교사들은, 불리운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거닐며, 하느님이 각 자에게 위탁하신 사제적, 예언자적, 왕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신자의 집단을 육성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세상에 있어서의 하느님 현존을 나타내는 표시가 된다.” ; 교회 헌장 26항: “그리스도의 이 교회는 신자들의 모든 합법적 지역집회에 존재하며, 각기 자기 목자들과 결합된 이 집단들도 신약에서 교회라고 부른다. 이런 집단들은 성령 안에서 큰 확신으로(1테살 1,5)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장소에 있게 된 새로운 백성이다.”

놓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섯째, 본당 사목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본당 상황에 맞게 적용하도록 조직 구성과 운영의 원칙을 제안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모델과 조직의 개념을 예시 없이 원칙만 제공할 때에는 현 본당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당 스스로 연구하여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현재의 조직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에 의해 과거를 답습하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본당 진단의 10가지 인자는 본당 울타리 내의 현상을 파악하는 요소로, EP-1234 자체 내에는 본당 외부의 환경에 대한 진단이나 분석 작업이 없고 그런 본당 외부 환경이 교회 10개 인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숙고가 빠져 있습니다. 개신교와 달리 천주교는 본당 외부인 교구나 교황청과 같은 외부 환경과 그런 책임자들의 지도력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3. 나오는 말 - 마무리 인사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선진국의 성장 부문은 영리 기업이 아니라 비영리 사회 부문이 될 확률이 높음을 예견합니다. 그는 오늘날 비영리 사회 부문은 경영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문일 뿐 아니라, 체계적·원칙적·이론적 경영이 가장 빨리, 그리고 최대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⁵⁾ 천주교회나 본당도 거대 조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피하지 않으면 종교 시장화의 물결 안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EP-1234같이 적절한 본당 활성화 방안이 제공되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감사의 말씀 한 가지를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발제자께서 평범한 신자들이 ‘위대한 교회의 사명’을 자각(自覺)하고 수행(遂行)하는 장(場)으로서,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하여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 살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야하는 길, 바로 생존의 길로 소공동체를 제시했다는 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 주교회의(FABC) 평신도 위원회(Office of Laity)에 소속하여 아시아 소공동체를 촉진하고 있는 아시아(AsIPA) 부서에서는 소공동체를 ‘교회의 새로운 존재 방식(New way of being Church)’으로 이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Being’은 단순히 ‘존재’라는 의미보다는 ‘생활한 존재’에 가까우므로 차동엽 신부님이 말씀하신 ‘생존’이라는 표현도 소공동체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교회의 운명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하는 교회, 참여하는 교회를 어떻게 이루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사목 일선에서 살아가는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평신도들의 주도적인 활동에 따라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평신도는 단순히 사목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 활동의 주체라야 합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더욱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평신도 그리스도인 9항)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 늘 시대의 표징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그 때 그 때 내놓아, 예언자적 사명을 살아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몸

5) 피터 드러커,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지식 경영자, 제10장 참조.

소 실천해 보이는 차동엽 신부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만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